

(주) 폴리머스넷

대표이사 : 진양석 사장

소재지 : (본사) 서울시 구로구 구로3동 212-16. 벽산디지털밸리 1차 106

(연구소 및 공장)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시화공단 3가 101-1 창업3-108

전화 : (02)2107-8166 Fax. (02)2107-8164 e-mail : rnd@polymersnet.com

homepage : <http://www.polymersnet.com>



(주)폴리머스넷은 2000년 창업 이래 Engineering Polymer와 Functional Polymer의 상업화 연구 및 생산을 진행해온 기업입니다. 자체적으로 TPE(PP/Acrylate계), LCP, COC, DMN 등의 특허 및 기술 패키지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 외 다양한 고분자 관련 기술을 상업화하고 있는 전문 연구개발 및 상업화 기업입니다. 또한 미국 및 유럽의 고분자 관련 기업이 주요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외국계 기업입니다.

이러한 고분자 기술의 상업화 및 기술 마케팅을 위해 경기도 시화공단 내에 여러 고분자들을 합성, 중합, 검과 운딩하고 이를 분석하는 모든 설비를 자체 보유하고 있으며 또한 각 고객사들에 대한 기술지원을 위해 자체 테크니컬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 테크니컬 센터에서는 소재 개발 이후 각 고객사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성형, 설계, 불량해결등에 있어 완벽한 지원체계를 갖추고 최대한의 고객만족을 위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고도의 고분자 기술을 각 용도에 맞게 안정적인 적용을 하기 위해 해외 유수의 고분자 관련 기업인 PolyPlastics

(日), Daicel Group(日), Teijin(日), PolyOne(美) 등과 공동 개발, 공동 마케팅 협력체계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들 기업과는 국내의 각 수요기업에서의 요구사항을 분석하여 새로운 제품을 공동 개발 또는 마케팅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신규 소재의 Scale Up 및 상업화 추진을 위해 최근 Nanocor(美)사와의 협력을 통한 신규 Nano-composite 개발, CBT라는 낮은 용융점도를 가지나 결정화 이후 PBT에 유사한 성능을 갖는 신규 소재 개발 (미국 Cyclics사 공동), 분자내 이온을 조정하는 방식을 통해 대전성을 갖게 하며 투명성을 유지하게 하는 신규 소재 개발(핀란드 IonPhase사 공동), 연료전지용 각종 소재 개발, 100% 생분해성을 갖는 PLA 소재의 상업화 개발(미국 Naturworks사 공동), PVC 등을 대체하기 위한 Non-PVC용 TPE 개발(자체)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지난 3년여간 약 20억원의 투자를 진행하여 결실을 맺은 자동차 외장 복합재의 Primerless 도장이 가능케 하는 신규 소재 개발을 완료하였습니다. 이는 Noprene(가칭) 이라는 브랜드를 갖는 신규 조성 TPO로서 PP 및 PE계 복합재 내에 투입될 경우 기존의 Primer(CPP 및 CPE 등)의 공정 없이도 우수한 접착성 및 기계적 물성을 발현케 하는 차세대 친환경/저코스트 시스템입니다. 동 기술은 지난 개발 기간 동안 각 완성차 범퍼 등에의 까다로운 테스트를 전부 통과하였으며 최근에는 해외 수요기업들과 활발한 초기 적용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폴리머스넷은 여러 기능성 신규 소재의 개발과 상업화에 매진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개발 활동은 일본, 미국, 유럽 등 여러 선진기업과 대등한 협력관계를 가져가며 진행되고 있습니다. 연구 개발은 국내에서, 생산은 주로 중국에서 진행하는 다국적 운영모델을 갖고 있으며 현재도 중국 남경과 상해 지역에 생산 공장을 협력체계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발 활동의 결과로 최근 매년 두 배 이상의 매출 신장을 거두는 등 가파른 성장을 기록하고 있으며 금년 내 제 2공장을 국내에 건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깊이 있는 연구활동을 위해 저희 폴리머스넷은 고분자 관련 업무 경력이 평균 10년 이상인 10여명의 전문 엔지니어가 국내외를 오가며 연구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연간 평균 30여 회 이상의 해외 기업과의 전문 기술 미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폴리머스넷은 국내의 Engineering Polymer 및 Functional Polymer 부문 연구개발의 선도 기업이 되기 위해 오늘도 새로운 신규 소재의 개발과 이의 상업화에 매진을 하고 있습니다.